

# 새만금 방조제 1년...바닷모래 대규모 채취 영광 칠산어장 죽어간다

### 모래톱 파괴로 먹이활동·산란 어려워

### ■새만금 일대 바닷모래 채취 현장



▲새만금 간척지 용도변경=전북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세계 최장 33km)를 건설, 만경강·동진강 하구의 갯벌을 간척지로 개발해 농업용지로 활용한다는 당초 계획을 변경해 상업·관광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 정부의 기본 구상안은 서울시 면적(6만1150여ha)의 46.2%인 새만금 간척지(2만8300ha)를 농업용지 71.6%(2만250ha)·산업용지 6.6%(1천870ha)·관광용지 3.5%(990ha) 등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민어 1천131t(판매액 114억2천여만원) ▲새우 7천597t(221억여원) ▲참조기 7천936t(393억9천여만원) 등이 잡혔었다. /요광특기자 kroh@kwangju.co.kr

새만금 간척지 방조제 끝물 막이 1년이 지난 최근, 군산 앞바다에서 대규모 바닷모래 채취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산 해역 아래 칠산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민들은 해사 채취로 인한 모래톱 파괴로 참조기·갯새우·민어·병어 등 서해를 회유하는 어종들이 먹이 활동과 산란에 영향을 받아 어장이 황폐해질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지난 1991년 이후 새만금 인근 신시도 일대 바다에서 5천700만㎡의 바닷모래를 캐내 방조제 축조에 사용했으며, 최근 간척지 용도변경을 추진하면서 추가로 대규모 바닷모래 채취를 계획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측은 그러나 산업·관광 용지를 추가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 간척지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경우 ▲2020년 1억~1.4억 4천만㎡ ▲2030년까지 2억~2.9억 6천만㎡의 해사가 추가로 파괴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약 52cm로 광주시(면적 501.11km) 전체를 덮을 수 있는 양이다.

어민들은 이 같은 새만금 앞바다의 모래 채취가 시작될 경우 직선거리로 43km 떨어진 영광·신안·부안 등 칠산바다의 어획량이 격감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임자도 인근에서 20년간 갯새우를 잡아온 선주 박기환(53·신안군 임자도)씨는 "해마다 3월부터 7월까지 칠

산어장에 새우잡이 어선들이 까맣게 물렸는데 새만금 방조제가 생긴 후 어획량이 급감했다"며 "바다 밑 모래에 서식하고 있는 새우는 다른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데 모래가 없으면 새우가 사라지고 다른 어종도 곧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금강·만경강·동진강을 통해 서해로 유입되던 '영양염류'(營養鹽類·nutritive salts)의 통로가 방조제에 막히면서 해양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으며, 바닷모래 채취로 장기적으로 인근 어장이 황폐화되고 서해안뿐 아니라 남해안 일대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전남대 전승수(지질학과) 교수는 "바다는 하나의 생명체로, 서해에서 균형이 무너지면 조류 등을 타고 그 영향이 전염병처럼 확산도 어장 등 남해 전역에까지 퍼질 우려가 크다"며 "서해안 지역에서 잡히는 조기·새우 등 많은 어종이 새만금 앞바다를 비롯 서해를 회유하며, 모래톱에서 먹이 활동과 알을 낳기 때문에 호남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어장 파괴 현상은 장기적으로 조금씩 드러나 관측하기도 힘들고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이미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새만금 건설에 따른 서해안 어장에 대한 종합적인 감시와 연구 지원, 이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남 서남해안의 경우 지난해



벌써 30도... "햇빛이 미워요" 광주의 낮 기온이 올 들어 최고인 28.3도까지 오른 22일, 금남로를 걷던 젊은 여성들이 종이 등으로 따가운 햇빛을 피하고 있다. 이날 구례의 낮 기온은 광주·전남에서 올해 처음으로 30도를 기록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높은 기온과 함께 강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어 외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줄 것을 당부했다. /나영특기자 mjna@kwangju.co.kr

## 미술대전 비리 3명 법원, 영장 기각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상작 선정 비리와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53) 심사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벌인 법원이 '피의자들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데다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김씨와 문인화 분과 위원장인 김모(53)씨는 출품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이들의 작품을 입상시키기 위해 심사위원들에게 미리 화려한 출품작의 사진을 의뢰해 한 뒤 수상작으로 선정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최모(48)씨는 이들에게 제작자의 작품을 뽑아달라며 2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당초 한국미술협회 전 이사장 하모(54·전남예총회장)씨 등 모두 9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검찰의 지시에 따라 김씨 등 3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된 3명을 포함해 미술대전 입상비리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9명에 대해 추가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타 분과에 대한 수사도 병행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특기자 penfoot@kwangju.co.kr

## 나원침 (7216) 김장동



더 좋은 건축·산업재 KCC

DS건설(주) KCC창호, 센스 들어 대리점

KCC창호, 시스템창호 생산·시공

▶ 본사: (062)514-3002 ▶ 공양: (061)337-9605

(주)본드나라 KCC실리콘 페인트 대리점

실리콘·방수제·접착제·테이프

▶ 광주점: (062)525-9002 ▶ 전주점: (063)271-5051

## 고소영 '악성 댓글' 네티즌 35명 고소

고소영 '악성 댓글' 네티즌 35명 고소

상나팔

○...탈렌트 고소영(사진)씨는 22일 인터넷의 댓글·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3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고씨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떠나 미혼의 여자 입장에서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지만 포털 사이트에 삭제요청하는 선에서 대응을 자제했다"며 "그런데도 언론 기사를 등장할 때마다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반복 게재하고 오프라인에까지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성이라는 보호막 아래 사생활과 관련한 치명적인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고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유도 대표선수들 등친 '나쁜 감독'

### 옛 한국마사회 소속 13명 2억여원 뜯겨

세계를 호령했던 대한민국 국가대표 유도선수들이 감독과 코치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원희, 은메달리스트 장성호·김민수, 아시아 유도선수권장 운동식 등 한국 유도 스타들이 현역 시절 우승으로 받은 각종 포상금 등을 소속팀 감독에게 빼앗긴

것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2일 소속 선수들로부터 입단 계약금과 포상금 등을 가로챘 옛 한국마사회(현 KRA) 유도부 전 감독 이모(46)씨에 대해 갈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 코치 윤모(4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1999~

2004년 팀 소속 전·현직 국가대표 유도선수 13명으로부터 팀 운영비와 계약금 등 명목으로 150차례에 걸쳐 2억2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수 개인에게 지급하는 전국체전 훈련지원비 전액과 마사회가 선수들에게 주는 대회 우승 포상금의 20%를 '팀 운영비' 명목으로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 박희현 해남군수 금품수수 혐의 구속

직인 승진인사 등과 관련, 거액의 뒷돈을 받아챘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박희현(63) 해남군수가 22일 구속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이영관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박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이날 오후 4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뇌물죄의 특성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면 뇌물 공여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이날 장흥교도소에 구속수감됐다.

지난 17일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들었던 잠적한 박 군수는 이날 오전 7시께 해남군 해남읍의 한 목욕탕에서 검찰 수사관에 붙잡혀 강제 구인됐다.

박 군수는 지난해 7월께 하반기 직원인사와 관련, 직원 3명으로부터 6천만원을 받고 올 3월 보조급 지원 명목으로 모 건설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검찰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 농협 청원경찰이 날치기

광주 북부경찰은 22일 길가던 여성의 가방을 날치기한 광주 모 농협 청원경찰 S(2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이날 새벽 0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길가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김모(여·27)씨의 입을 틀어막은 뒤 현금 16만원이 든 핸드백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김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쫓아온 대리운전 기사 등에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명품신도시의 중점특권을 누리는 3,813 평대단지!

| 품격정전·호수공원 조의 최고 입지 |

수완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367-9000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주)조이트래블**

www.joy-travel.net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5가 57번지 2F

대표전화 (062) 234-3222

기억에 오래도록 간직될 가슴 설레이는 여행... 매년 1만명 이상의 고객들께서 조이트래블을 통해 여행을 다녀오십니다.

해외여행 보증보험 5억원 가입업체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광주에서 출발하는 **장사(장가계) 전세기 직항**

"人生不到張家界 百歲豈能稱老翁?"

"사람이 태어나서 장가계에 가보지 않았다면, 100세가 되어도 어찌 늙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중국 남방항공(CZ) 이용 6월 16일~11월 28일까지

광주-장사 매주 2회(수,토), 총47회 운항!!

코드	상 품 명	여행기간	적용기간	출발일	상 품 가
KCZP-1	[장사/장가계] - 보봉호 유람선, 천자산 케이블카	3박4일	6/16~7/13	수	549,000
KCZP-2	[장사/장가계/황석채] - 황석채 왕복 케이블카, 황룡동	4박5일	6/16~7/13	토	599,000
KCZP-3	[장사/장가계/천문산] - 천문산 왕복 케이블카, 황룡동	4박5일	6/16~7/13	토	629,000
KCZP-4	[장사 GOLF] (54H) - 청죽호C.C, 지산C.C, 용호C.C	3박4일	6/16~7/13	수	699,000
KCZP-5	[장사 GOLF] (72H) - 청죽호C.C, 지산C.C, 용호C.C, 청죽호C.C	4박5일	6/16~7/13	토	799,000

\* 공동여행사형 : 공항세, 출국세, 전경보령료, 현지공항세, 유류세, 1억원 여행자보험  
 \* 불포함사항 (관광) : 단체비(18,000), 기사 가이드 봉사료 (1박당 10,000원)  
 \* 불포함사항 (골프) : 단체비(18,000), 기사 가이드 봉사료 (1박당 10,000원), 클럽하우스 중식, 캐디팁, 클럽 렌탈비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성수기 요금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관광거버넌스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 6개월 연임보증보험 가입 / 여행객 가입업체  
 ◆ 교통요건 :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객보험 가입(해외여행1억원, 국내여행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경비 없음 (단, 개인적인 팀, 선박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출발인원 15명 이상

◆ 상의요금은 환불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약시 계약서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래블